

H
206 6474
중 3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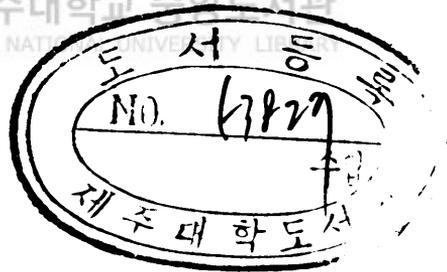
碩士學位請求論文

英語 듣기 能力 伸張을 위한
授業過程 模型 研究

指導教授 金 順 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韓 仁 順

1996年 8月

英語 듣기 能力 伸張을 위한
授業過程 模型 研究

指導教授 金 順 澤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6년 6월 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韓 仁 順

韓仁順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6년 7월 일

審査委員長 高 泰 拱 

審査委員 김 희 영 

審査委員 金 鍾 勳 

〈抄 錄〉

英語 듣기 能力 伸張을 위한 授業過程 模型 研究

韓 仁 順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順 澤

본 논문은 영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킴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 실제 수업에서 어떠한 학습 기법과 교수모형이 적절한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6장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제1장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제2장에서 듣기능력에 대한 이론들을 검토한 후 제3장에서는 듣기학습에 대한 효과와 듣기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효율적인 듣기 방안으로서 받아쓰기를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받아쓰기에 대한 이론들과 그 유형을 고찰했다. 제4장에서는 받아쓰기를 도입하여 듣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제5장에서 받아쓰기를 통한 듣기능력 향상 수업과정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영어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원어민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때, 듣기 교육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듣기 능력 신장 방안으로 받아쓰기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았다. 받아쓰기 활동은 학생들에게 음성언어에 집중되는 주의력을 높여주므로 음 식별과 청해력 연습에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이 될 뿐만 아니라 음과 철자간에 테스트, 문 구조 테스트, 의미있는 연속적인 언어음을 인지하도록 요구하는 종합적인 듣기능력 신장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학습모형에서 정리단계에 받아쓰기를 포함시켜 5단계의 수업모형을 제안했는데 이 모형은 학생들의 수준과 수업의 내용에 따라 조절 할 수 있으며, 초급 단계의 학생들에게는 어렵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6장에서 이러한 논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며 이미 소개한 지도방안을 활용한 새로운 교수 모형에서 기대되는 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듣기지도를 위한 언어자료의 선정과 받아쓰기가 포함된교재편찬, 듣기능력 테스트의 문항작성등의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II. 듣기능력의 이론적 배경	3
1. 듣기능력의 의미	3
2. 듣기의 중요성	4
3.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	9
1) Total Physical Response 교수법	9
2) Postovsky의 청취 우선 교수법	10
3) Natural Approach	11
4) Community Language Learning 교수법	13
III. 듣기 학습	15
1. 듣기의 특성 및 발달단계	15
1) 듣기의 특성	15
2) 듣기의 발달단계	17
2. 듣기학습의 방향	20
3. 받아쓰기 학습	22
1) 받아쓰기의 의미	22
2) 받아쓰기의 효과	23
3) 받아쓰기의 유형	25
IV.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방안	32
1. 초급단계 받아쓰기	32
2. 중급단계 받아쓰기	34
3. 고급단계 받아쓰기	35
V. 듣기능력 향상 수업과정 모형	36
1. 듣기능력 지도상의 일반적 원리	36
2. 받아쓰기를 통한 듣기중심 수업	38
VI. 결 론	47
참고문헌	49
Abstract	52

I. 서 론

외국어 교육의 목적은 언어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하고, 외국어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에 접할 수 있게 하며, 다른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최근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가간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외국어, 특히 영어사용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추어 우리의 영어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과거의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교양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나 현재에는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해 사회문화적인 면과 대화의 측면을 강조하여 상급학교 입시준비를 위한 문법설명과 번역위주의 학습을 피하고 실제적인 언어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오랫동안 영어공부를 해도 실제로 외국인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수용하는 것으로 우리 영어교육에는 긍정적인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오랜시간 영어를 배우고도 아직도 영어의 원어 민들과의 대화인 경우에는 실제로 극히 제한된 의사소통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볼때,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첫번째 원인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이해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능력의 중심기능인 듣기와 말하기에서 일단 듣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자연스런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 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듣기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어 영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영어교육도 1983년부터 중, 고등학교에서 영어 듣기에 관심을 가지고 영어 듣기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듣기교육은 교육현장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리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는 수업과정에서 듣기지도에는 별로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으며 지도를 한다고 해도 녹음기를 통해 단어와 문장들을 듣고 따라하는 정도에 그치므로써 듣기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의사소통능력에서 가장 기본적인 듣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밝히고, 실제 현장에서 그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면 바람직한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듣기능력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듣기중심 교수법에 대해 알아보고, 제Ⅲ장에서는 듣기학습의 방향과 효과적인 듣기지도 방안으로서 받아쓰기에 대해 고찰해보며, 제Ⅳ장에서는 받아쓰기를 중심으로한 듣기능력 지도방안을 제시하고, 제Ⅴ장에서는 제Ⅱ장, 제Ⅲ장, 제Ⅳ장에서 연구한 것을 기초로 해서 듣기능력향상 수업과정모형을 제시하므로써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이도록 하겠다.

끝으로 제Ⅵ장은 결론으로서 앞에서 논한 바를 요약, 정리 하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듣기능력의 이론적 배경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화자는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선택한 어휘를 사용하여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화자의 발화속도나 어휘 등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듣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듣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장에서는 이러한 듣기능력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위하여 듣기능력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듣기능력의 의미

듣기능력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몇몇 연구를 통하여 먼저 그 정확한 개념을 알아보기로 한다.

Random Hous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New York 1987)에서는 listening을 "to give attention with the ear, attend closely for the purpose of hearing"으로, hearing을 "to perceive by the ear"로 풀이하고 있다. 최초로 청취력에 관한 연구를 한 Rankin(1926)은 listening을 "the ability to understand spoken language"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¹⁾

Johnson(1951)은 listening을 상대방이 전달한 의사를 효과적으로 이해를 하여 반응을 보일수있는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고있고,²⁾ Tossaint(1960)는 발화를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³⁾ Nichols와Lewis(1954), Hampleman(1958)은 구체적으로 listening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 a continuous process and includes not only perception but also includes interpretation, assimilation, association, and

-
- 1)P.T.Rankin(1926). The Measurement of the ability to understand Spoken Language.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University press, p.109.
 - 2)K.D.Johnson(1951), "The Effect of Classroom Training Upon Listening Comprehension", Journal of Communication, May, p.58.
 - 3)I.Toussaint(1960). "A Classified Summary of Listening", Journal of Communication, September, p.126.

reaction⁴⁾(Nicolols and Lewis 1954)

. . . the act of giving attention to the spoken work, not only in hearing symbols, but in reacting with understanding⁵⁾(Hampleman 1958)

Duker(1966)는 listening과 hearing을 reading과 seeing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고, Keltner(1970)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Seeing is an essential step in reading but is synonymous with it. So also hearing is an essential step in listening but the two processes are the same(Duker 1966).⁶⁾

. . . a complex and unique function of perception and attention which involves auditory and visual capacities of the listener. Listening is a selective process in that we pick out from the many stimuli surrounding us those most fitted to our needs and purpose(Keltner 1970).⁷⁾

위의 여러가지 정의를 종합해 보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hearing이고, hearing이상의 행위, 즉 소리를 듣고 청취자의 지식, 경험, 예측으로 들은 소리를 해석하는 것이 listening 또는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 할 수 있다.

2. 듣기의 중요성

의사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를 통한 하나의 전달 과정이기 때문에 말한 것이 타인에 의해서 이해되지 않는다면 말한다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4)R.G.Nichols & T.Lewis(1954),Listening and Speraking.Williams Brown Company, p.5.

5)R.Hampleman(1958),“Comparison of Listening and Reading Comparison Ability of 4th and 6th Grade Pupils”,Elementary English,January, p.49.

6)S.Duker(1966),Listening:Readings.New York:Scarecrow press. p.19.

7)J.W.Keltner(1970),Interpersonal Speech-Communication, Belmont,California:Wadsworth Publish Co. p.130.

의사 전달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전달은 1차적으로 들어서 이해하는 능력 즉 듣기 능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며 이 능력은 언어학습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어 학습자들이 외국인과의 대화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은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듣기능력은 말하는 능력보다 먼저 습득되어야 할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듣기의 중요성은 직접 교수법의 학습이론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다.

"These theorists shared a common belief that students learn to understand a language by listening to a great deal of it and they learn to speak it by speaking it-associating speech with appropriate action. This, they observed, was the way children who had been transferred to a different linguistic environment acquired second language, apparently without great difficulty." ⁸⁾

이 교수법을 주창한 사람들은 어린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듣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듣기와 구어를 중시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언어를 많이 듣는 것을 통해서 먼저 그 언어를 이해하고 그 다음 동작을 결부시켜 말함으로써 말하기를 배운다는 것인데, 이 과정은 어린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방법인 것이다.

Nord(1980)는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Some people now believe that learning a language is not just learning to talk, but rather that learning a language is building a map of meaning in the mind. These people believe that talking may indicate that the language was learned, but they do not believe that practice in talking is the best to build up this 'cognitive' map in the mind. To do this, they feel, the best method is to practice meaningful listening." ⁹⁾

8) W.M. Rivers, (1981),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31-32.

9) J.R. Nord (1980), "Developing Listening Fluency before Speaking: An Alternative Paradigm," System, 8.1, p. 17

즉, 듣기는 언어 습득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며 학습자에게 언어 사용 능력에 필요한 지식을 저장해 주고 정보를 공급하는 활동이다. 학습자는 이러한 지식이 어느 정도 저장되었을 때 비로소 말하기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다. 또 듣기 훈련은 다른 언어 기능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관찰과 학습의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말을 못한다는 것은 청취력 습득에는 별로 지장이 되지 않지만, 듣지 못한다는 것은 말하기 능력에 막대한 영향과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듣기는 언어 소통의 핵심이며 기본인 것이다.

언어 학습에 있어서 소리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머리속에는 심리적 영상이 새겨지는데 이것을 청각심상(acoustic image)이라고 부른다. 이 청각심상의 역할이 언어의 4기능에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채준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Listening : 청 취→청각심상→개 념
 Speaking : 개 념→청각심상→발 음
 Reading : 목 격→문자심상→청각심상→개 념
 Writing : 개 념→청각심상→문자심상→서 사¹⁰⁾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청각심상은 4기능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중간 단계에 놓여 있으며, 그 기능이 성공적인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데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청각심상은 언어의 4기능 습득에 필수 요소인 동시에, 학습에 있어서도 청각심상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 발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청각심상을 학습자로 하여금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어를 바로 듣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영어 교육에서 청취력은 다른 영어 기능의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언어 교육현장에서 경시되거나 전혀 무시되어 왔다.

구두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소리의 정확한 습득이다. 따라서 음성언어를 먼저 배우고 자신이 있을 때 문자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귀의 훈련과 말하는 능력의 발전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생리학 및 심리학적인 이론의 바탕 위에서 말하는 능력 이전에 듣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의사 전달을 위한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Newmark와 Diller(1977)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10)채준기(1978), "영어의 Aural Comprehension Test의 작성." 「외국어 교육 논문선」 p.295-296.

“Modern audio-lingual theory stresses a listening-speaking-reading-writing sequence in foreign language instruction. The importance of ear training in developing speaking proficiency receives particular emphasis. There are strong arguments, both physio-logical and phychological , for preceding speaking practice with training in listening comprehension.”¹¹⁾

다시 말해서 구두 표현 능력은 듣기 훈련의 정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유창한 구두 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듣기 훈련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듣기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학습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여 목표어 사용에 있어서 좀더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Brooks(1960)도 듣기를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다루어져야 할 기능으로 보았다. 그는 “Ear training must come first.” 라고 하여 청취력을 언어의 다른 기능에 앞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 Brooks는 샌디(sandi)현상 즉 문맥이나 강세, 억양, 말의 속도 등의 결과로서 자연스런 말에서 일어나는 음의 변화현상을 학습자가 이해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듣기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¹³⁾ 여기서 샌디현상(sandi-variation)은 문맥 또는 한 단어에서 가깝게 있는 것의 영향을 받아 서로 이어져 발음이 나는 것으로 예를 들면 What do you want?가 [hwat ju want] 로 발음 되는 현상이다.

한편 Belasco(1965) 역시 듣기를 말하기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학습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언어 학습 초기부터 음성학적인 기본형과 구문의 유형 및 샌디현상을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⁴⁾

다른 한편으로 Postovsky(1974)는 그의 여러 실험결과를 통하여 말하기보다 듣기 훈련을 강조하면서 청취 이해력의 우선적인 개발을 역설하였다. 그래서 의사 전달에 필요한 두 기능

11)G. Newmark & E Diller(1977). “Emphasizing the Audio-Lingual Approach.” i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A Book of Readings,2nd ed.by Harold B.Allen and Russell N.Campbell,New York:McGraw-Hill. p.98

12)N Brooks(1960).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Theory and Practice New York:Harcourt Brace and Co. , p.107

13)Ibid p.50

14)Simon Belasco(1965). “Nucleation and the Audio-Lingual Approach.” The Modern Language Journal,49,pp.482-489

즉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Given this difference between the two events, it would be unreasonable to assume the receptive and expressive skills develop simultaneously, since we have ample evidence from psychoneurological research that expressive language depends on receptive process for its development." ¹⁵⁾

이와 같은 주장과 견해를 같이하는 학자들은 Krashen과 Terrel 그리고 Asher등이다. 그들 중에서도 Krashen과 Terrel은 외국어를 귀로 들을 때 인지의 반복이 기억을 돕고 음성을 익혀 구두 표현의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또 Ashers는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어 청취력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Gray(1978)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초기의 구두 연습을 지연시키는 것이 감정적인 면에서나 언어 습득 이론상 바람직하다고 역설하고 그 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¹⁶⁾

- (1)인지적 이점(cognitive advantage) : 외국어 학습자가 듣는 언어의 기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훈련하는 것은 그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다. 더구나 학습자 자신이 기억 속에 저장되어 불가능한 자료를 말하도록 강요 받으면 단기 기억에 과중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언어 습득에 장애가 된다. 또 듣기의 집중은 다른 기능에 전이가 잘 이루어진다는 이점이 있다.
- (2)정의적 이점(affective advantage) : 학습자들이 타인 앞에서 문장을 발표하도록 하면 당황하게 되고 아울러서 집중력과 학습의 효과가 경감된다.

15)V.A.Postovsky(1974), "The Effects of Delay in Oral Practice at the Beginning of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Modern Language Journal* 58, pp.38-39. 이계순(1986). p.66-67에서 재인용.

16)J.O.Gray(1978), "Why Speak if You Don't Need to? The Case for a Listening Approach to Beginning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Issues and Implications*, Ritchie, William Co., ed. New York Academic Press, pp.185-189.

(3)효율적 이점 (efficiency advantage) : 외국어 학습은 모국어 학습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용 능력과 표현 능력 사이에는 격차가 있다. 그래서 학습자가 발표할 것을 걱정하지 않을 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4)실리적 이점 (utility advantage) : 듣기 훈련은 학습자 단독으로 계속할 수 있으며 듣기는 말하기 보다 우선하며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구어의 듣기이해 능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듣기능력의 개발은 필수적이며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듣기능력의 개발이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올바른 구두 표현력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은 초기 단계에 언어의 4기능 중 듣기 훈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 대신 말하기를 지연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듣기·말하기를 동시에 훈련하면 학습자에게 부담을 주어 듣기 이해에 방해가 되고, 결국 발음상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영어 교육도 듣기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

다음은 앞에서 언급했던 듣기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가지 주장과 이론적 근거를 배경으로 학생들의 듣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외국어 교수법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Total Physical Response 교수법

전신반응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 : 이하 TPR 이라 약함)은 Asher(1969)가 주장한 방법으로 목표어의 명령문을 듣고 행동함으로써 반응을 나타내게 하는 방법이다. 그는 외국어 학습은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시간이 제한되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교육에서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을 하려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기

능 중 다른 세가지 기능으로의 전이가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기능을 골라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한 기능은 청취력이며, 청취력이 말하기, 읽기, 쓰기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PR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가 학생에게 목표어(target language)로 '명령' (commands)을 내리고 학생들은 그 명령에 따라 신체의 동작을 이용해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명령은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명령문으로 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구문의 명령문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 방법은 어린이가 초기에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과 비슷하며 어린이가 언어습득에 있어서 말하기 전에 복잡한 명령에 반응을 보이며 발음하게 된 후에도 유창하게 말을 할 때까지 듣기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TPR의 수업진행 방법은 첫째, 교사가 학생에게 외국어로 간단한 '명령'을 하고 학생들은 그 명령을 들음으로써 시작된다. 둘째, 자진해서 또는 지명에 의해 몇몇 학생들이 앞에 나와 교사의 명령에 따라 행동을 하고 다른 학생들은 관찰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명령은 계속된다. 셋째, 처음에는 지시에 따라 교사와 함께 행동하며 다음에는 학생들만이 행동하고 후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씩 행동하게 하여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측정해본다. 넷째, 관찰하는 학생들 가운데 몇명을 선정하여 같은 지시를 주고 행동하도록 해서 이해도를 측정한다.

이 교수법은 외국어 학습의 초기에 정확한 발음지도가 가능하고 학습동기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언어 형성기의 후반부터 외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우리의 실정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Postovsky의 청취우선 교수법

Postovsky(1975)는 모국어 습득 과정에 있어서 청취가 표현에 선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어 습득은 모국어 습득과 다르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제시하면서 발화를 이해할 때까지 발화연습을 지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일반적인 언어습득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We have no valid reason to believe that the sequence of events is different for second language learning. Learning to talk in a foreign

language of at least two reciprocally correlated skills : (1)Processing of auditory input, and (2)generation of speech out. ¹⁷⁾

그는 청취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청취 단계에서도 초기에는 귀로 들은 외국어를 기억하도록 하지 않고 즉각적인 인지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지가 계속 여러번 반복되면 점차 기억에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인지단계에서 언어의 종합적인 구조가 내재화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구두 반응이 따르게 되며, 이때에야 비로소 구두 연습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이 방법에 대하여 이계순(1986)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1)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구두연습을 늦추고 먼저 청취와 쓰기만 시킨다면 4 기능을 개발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 (2)청취한 말을 문자로 쓰게 하는 연습은 말하기로의 추이를 용이하게 만든다.
- (3)동일한 구두입력(spoken input)을 가지고 쓰기연습을 시키는 편이 문법구조를 훨씬 더 잘 제어할 수 있게 한다.
- (4)발음연습에 앞서 정서법의 제시는 발음을 먼저 연습시키고 문자를 뒤에 제시할 때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소시킨다. ¹⁸⁾

3)Natural Approach

자연교수법(Natural Approach : 이하 NA라 약함)은 외국어 습득 이론을 토대로 Krashen & Terrell(1983)에 의해 고안된 성인의 외국어 습득에 대한 방법으로서, 다섯가지 주요 가설과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주는 다섯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가지 가설은 첫째, 학습과 습득이 구별되어야 하고 둘째, 문법구조의 습득에는 자연적인 순서가 있으며 셋째, 규칙의 학습이 모니터의 구실만을 하여 학습을 통해 얻은 규칙은 발화를 교정할 때에만 필요하고 넷째, 입력은 현재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상의 구조나 어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며 다섯째, 습득이 이루어지려면 심리적 불안감이나 긴장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가설이다. ¹⁹⁾

그리고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주는 다섯가지 요인으로는 첫째, 제2언어에 대한 적성, 둘

17)V.A.Postovsky(1975), "The priority of oral comprehension in the language acquisition process." Proceedings of the 4th AILA Congress, Stuttgart, p.4.

18)이계순(1986), 영어교육, 서울:개문사 p.66.

19)S.D.Krashen & T.D.Terrell(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Oxford:Pergamon and Alemany, p.59

째, 모국어의 역할, 셋째, 학습초기에 기계적으로 암기한 틀에 박힌 표현과 문형(routiness and patterns), 넷째, 개인에 따른 모니터 사용의 차이, 다섯째, 연령의 차이등을 들고 있다.

NA의 기본원리는 궁극적으로 의사교환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배양하는 것인데, 이해력이 언어수행 능력보다 앞서 개발되어야 하고, 구두수행 능력은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나타난다는 것이며, 수업활동은 학습(learning)보다 습득(acquisition)을 위한 input을 제공해주는 활동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정의적 장벽(affective filter)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이 바로 '이해력'(comprehension ability)이므로 구두수행 능력보다 먼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이해력이 확립되면 구두수행 능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직접 가르쳐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듣기자료'를 많이 들려주고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언어의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처음부터 말하기를 강요하지 않고 정확성을 위한 직접적인 오류의 교정을 피해야 하며 청취입력은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이라야 하겠다.

NA는 '이해의 단계 "초기 구두수행 단계" 구두수행 단계'의 세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해력의 개발이 목적인 제1단계에서는 구두수행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TPR과 동일하며, 이해력 개발을 위해 TPR을 이용하고 있다. 이 시기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자료를 많이 들려주고 신체의 동작, 사진, 그림 따위를 이용하여 구체적 상황을 가능한 풍부하게 제시하여 이해력이 빨리 성장하도록 돕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교실내의 학생이나 실물들에 대해 묘사하고 누구를 혹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중요한 단어나 몸짓, 상황을 부여하여 알아 맞히게 하는 방법 또는 한 학생을 밖에 나가게 한 후 영어로 지시하면서 사물을 찾는 방법등도 사용할 수 있고 교사는 그러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반복(repetition)과 바꾸어 말하기(paraphrase)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제2단계에서는 그림이나 패도를 이용하여 'yes'나 'no'로 대답하기,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의 문문이나 선택 의문문을 주고 이해의 정도를 물어보기,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도표의 맞은 칸에 표시를 하거나 동료들에게 인터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기, 시간표나 광고를 사용하여 묻고 대답하기, 이 외에도 초기 구두수행 단계의 향상을 위해서 문장의 빈 자리를 단어나 구로 채워 말하게 하거나, 간단한 대화의 빈 자리를 채워 말하게 하는 방법 등을 쓸 수 있다.

제3단계에서는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화게임이나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한 내용에 대해 true-false로 답하게 한 후 맞은 수를 세는 게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질문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방법, 한 주간의 계획이나 주말에 여러 사람의 취미생활 또는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 차트를 작성하여 묻고 대답하거나 토론하기, 연속된 동작이 들어있는 그림을 제시한 후 시제를 바꾸어 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한다든지 시간과 요금이 표시되어 있는 시간표를 제시한 후 묻고 대답하기, 그 밖에 지도나 graphs, 잡지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해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입력의 길이가 길어지고 수준도 높아간다는 것이다.²⁰⁾

이상에서 볼때, NA는 전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다른 교수법을 많이 이용한 절충적이고 융통성있는 방법으로서 특별한 시설이나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어느 상황에서나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Community Language Learning

집단언어 학습법(Community language Learning : 이하 CLL이라 약함)은 Curran(1976)이 상담을 통한 학습(counseling-learning)의 일환으로 개발한 교수법으로 여기에서 상담자는 피상담자로 하여금 의존적이고 불안정한 외국어 사용에서 점차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국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즉, CLL에서 교사는 종래의 교사중심의 교수법에서와 같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에 있어서의 상담자(counselor)와 같이 피상담자(client)인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다.

CLL하에서의 수업은 '소집단' (small group)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외국어에 익숙해지기 위해 언어에 대한 경험을 쌓는 시간과 그 경험을 토대로 구성된 상호간에 의미있는 의사교환이 이루어지는 '회상' (reflection)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험시간에는 학습자가 자신의 흥미와 욕구에 따라 말 할 내용과 주제를 선정하여 모국어나 외국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상담자는 이를 올바른 형태의 모국어로 고쳐주고 학습자는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형식을 취한다.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음기에 녹음한 다음 몇차례 반복하여 듣게 한다. 초기에는 학습자가 모국어로 자기표현을 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어능력이 개발되면 점차 외국어를 사용하

20)주무현(1993), "청해력의 학습효과 측정과 받아쓰기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남대 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게 된다. 경험 시간이 끝난 후 갖게 되는 '회상' 시간에는 앞서 행한 경험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다음 수업에 대한 제안 등을 각자 글로 쓰게 한 후 차례대로 읽힘으로써 수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해 나가는데 이러한 점에서 CLL은 학생중심(student-centered)의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CLL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외국어 습득의 상담자로서 교사는 모든 학습자에 대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다정다감한 태도와 깊은 이해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며, 외국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언어 수행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Ⅲ. 듣기학습

본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듣기능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듣기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도록 한다. 듣기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듣기능력의 학습효과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학습으로 그러한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듣기능력은 학습될 수가 있으며, 학습결과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많이 나왔는데, Snow와 Perkins(1979)는 청취력은 다른 언어기능처럼 가르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What is clear is that skill in listening, like all other language skills, is something which can be taught and should be taught in a systematic and sequential manner²¹⁾

듣기능력에 관한 학습에 관심을 처음 보인 것은 화청각 교수법(audio-lingual method)으로 수업을 하던 외국어 담당교사들과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에 의해 시작됐다. 1970년부터 외국어 학습에서 듣기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Asher(1969)의 TPR이나 Krashen과 Terrell(1983)의 NA등의 언어의 이해에 바탕을 둔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이 나오게 되었고 이해력 접근에 관한 연구와 함께 듣기활동에 적절한 교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기본 생각은 듣기능력은 가르칠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 듣기의 특성 및 발달단계

그러면 의사전달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듣기능력은 어떠한 특성과 발달단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1) 듣기의 특성

의사전달의 기본요소인 듣기는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고 박형기(1980)는 주장하고 있다. ²²⁾

21) B.G.Snow & K.Perkins(1979), "The Teaching of Listening Comprehension and Communication Activities", TESOL Quarterly 13, p.51

22) 박형기(1980), "Language Acquisition through the 'ear Gate'", 『영어 교육』, 제 19 호, pp.27~28.

(1) Listening is a process involving at least two people.

대화는 말하기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듣기와 말하기로 이루어진 언어행위인 것이다.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이해되지 않고서는 의사전달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The listener is forced to accept the way the speaker talks.

듣기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화자의 말솜씨, 억양, 속도 등 말하는 방법을 청자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이와같은 특성은 읽기의 특성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읽기와 듣기의 유사성은 양쪽이 모두 어휘의 이해, 어휘에 대해서 감정적 또는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흥미의 정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반면, 읽기는 글을 뛰어넘는다든가 다시 볼 수 있으나 듣기는 전적으로 화자의 말에 의존하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청자는 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한다.

(3) Audio skills are in large part physical rather than intellectual.

영어를 듣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처음 듣는 영어가 우리가 그것을 분간하기 전에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영어는 어떠한 전달이든 간에 많은 수의 부호로 구성된다. 이것이 회화에 사용되려면 무척 빠른 속도로 구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신호들을 우리가 조정하지 못한다면 알아들을 수 없다.

(4) Listening is the prerequisite to the other phrases of language communication.

① 듣는 능력은 의사소통이 있어서 다른 어떤 기능 보다도 가장 먼저 습득되어야 할 중요한 기능이다.

② 어릴 때 듣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말하는데조차도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 점에 관해서 Nord(1975)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There are cases of youngsters who, because of congenital disability, can never learn to speak, yet they learn to comprehend and are not prevented from comprehending the language because of this inability to speak. On the other hand, Children with listening difficulties such as deafness have great difficulties over learning to speak."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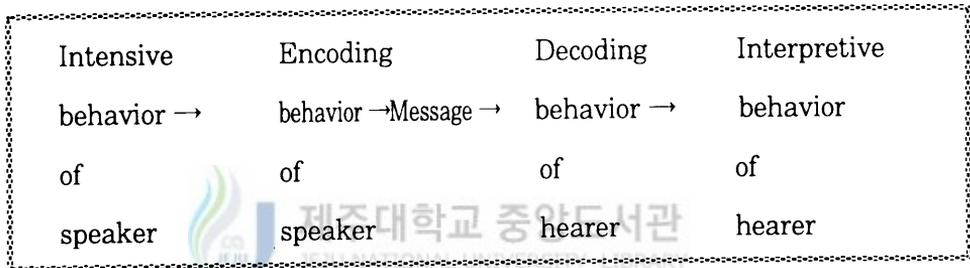
23) J.R. Nord(1975), "The Importance of Listening," The English Teachers Magazine, XXIV. p.35.

다시 말해서 말을 못하게 되면 듣는 것을 배우는 데에는 큰 장애가 없지만 듣지 못하면 말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듣기의 발달단계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영어가 복잡한 심리적 육체적 과정을 거쳐 이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청해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Carroll(1953)은 듣기의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²⁴⁾

(Communication model)



어떤 내용이 화자로 부터 청자에게로 전달이 되는 과정은 화자의 기호화 행위(encoding)를 거쳐서 만들어진 어떤 메시지가 청자의 해독이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거쳐서 나름대로 의미를 해석해 내는 과정인 것이다. 그림의 오른쪽이 듣기와 관련되는 과정이다. 어떠한 말(speech)을 듣고 이해하는 데 처음에는 구별되지 않는 잡음군 속에서 일정한 순서를 알아차리게 되고 음성의 높낮이나 호흡에 있어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여 음성적인 것과 통사적인 것을 구별하게 된다.

따라서 청취자가 어떤 말을 듣고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청취자의 능동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Taylor(1981)는 청취력의 이해단계를 다섯 단계로 나누고 청취력 학습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²⁵⁾

Stage 1 : Stream of sound(Zero comprehension)

Stage 2 : Isolated word recognition within the stream (minimal comprehension of general content)

24)J.B.Carroll(1953),The Study of Language,Cambridge,Mass:Harvard University press. p.88.

25)H.M.Taylor(1981),“Learning to listen to Rnglish”,TESOL Quarterly 15.1.March,p.41

Stage 3 : Phrase formula recognition(marginal comprehension of what is heard)

Stage 4 : Clause / sentence recognition(minimally functional comprehension of content)

Stage5 : Extended speech recognition(general comprehension of unedited speech)

단계 1에서는 모든 소리의 식별을 익힌다. 억양, 휴지, 발화속도, 음조의 변화 등을 익히고 모국어의 음과 목표어의 음을 대조하면서 음의 식별력을 기른다. 이 단계에서는 소리의 식별만을 위하여 집중적인 훈련을 한다. 단계 2에서는 목표어와 모국어의 차이점, 연결, 구와 문장강세를 이해시키고 단어를 학습시키며 말하기 훈련은 지연시킨다. 단계 3에서는 영어 사용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이나 음식 주문 등의 간단한 문장이나 구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들은 단어를 단기 기억속에 보유해야 한다. 단계 4에서는 통사구조를 이해하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다. 축약, 생략 등이 포함된 정상적인 발화를 듣고 의미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는 단계다. 단계 5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문맥을 통해 새로운 어휘를 파악할 수 있는 단계다.

이 다섯 단계는 서로 앞 단계와 연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의 욕구에 맞추어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하고 토론, 대화, 영화, TV등 다양한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도 쌓아야 한다. 듣기학습은 이 발달단계에 맞추어 교사와 학생의 적절한 듣기활동을 통해 교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는 있어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경우는 청자가 어떤 발화의 언어적 사실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구두로 전해진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는 데는 단지 언어적인 정보를 추출해 내는 것 외에도 거기에서 청자 나름대로의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후 상황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 학생들의 청취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Rivers(1968)가 말하는 두 차원, 즉, 인지 단계와 선택 단계 때문인데, 이 둘 가운데서도 인지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어 및 구의 구별, 구조의 이해, 시제 및 수식어의 파악 등이라고 본다. 처음에 영어의 발화에 접하는 순간 그것은 무차별 소음으로 학습자의 귀를 자극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들

는 동안에 그 잡음군 속에 어떤 질서 즉, 음성의 상승 및 하강과 호흡군(breath group)속에 어떤 규칙성을 지각하게 된다. 그 다음 학습자는 단어, 어휘 또는 간단한 표현등과 같은 음성의 결합체를 다소 익히게 됨에 따라 음성적, 통사상의 형, 즉 영어의 분절을 이루는 반복적 요소를 구별하기 시작한다. 여기까지가 인지단계이다. 선택단계는 학습자가 계속해서 많은 영어 담화를 듣는 연습을 함으로써 비로소 담화의 내용을 결정하는 필수요소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청자는 의사소통에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요소나 또는 청자 자신의 목적에 알맞은 요소를 추출해내는 것이 선택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생들이 영어를 듣는 것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인지단계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고, 소리흐름으로부터 어떤 메시지의 내용을 추출해 내는 선택의 단계가 그 다음 단계로 숙달이 돼야한다.

Chastain(1976)은 듣기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계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1)언어의 중요한 음과 억양사이의 구별.
- (2)구두로 전해진 메시지를 인식함.
- (3)이해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청각기억 속에 유지.
- (4)화자의 말 속에 내포된 내용을 이해. ²⁶⁾

학습자는 초기에 음을 식별하는 훈련을 해야한다. 그 언어의 음과 억양에 익숙해지면 기억의 유지와 의미파악이 더 용이해진다. 따라서 구두로 전해진 메시지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음을 기억하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이것이 앞 단계인 음식별과 뒷 단계인 내용이해 단계를 연결해 주는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다.

소리는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무형의 성격으로 기억능력이 청해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듣기는 총괄적 과정으로 난이도에 있어서도 쉽고 간단한 것에서부터 길고 어려운 것으로 기억척도를 발전시키는데 높은 수준의 기능을 보다 낮은 수준의 기능에 좌우되는 것이다. 한편, 김진우(1983)는 듣기를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학습의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다. ²⁷⁾

(1)듣기의 제1기

배우고자 하는 외국어의 소리를 들어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훈련하는 기간

26)K.D.Chastain(1976).Developing Second Language Skills:Theory to Practice,2nd ed.Chicago:rand McNally.p.287.

27)김진우(1983).「영어 교육의 원리와 방법」.서울:중앙 대학교 출판부,pp.242~251.

을 듣기의 제1기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억양이나 강세들도 훈련하게 된다. 제1기에서는 듣기만을 많이하고 집중적 청취연습을 시켜야 한다. 학습시간도 20분 내외가 듣기로 적당하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어야 한다.

(2)듣기의 제2기

음운조직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어휘와 문법의 실력을 확대해 나가는 단계를 말한다. 학습의 주안점도 발음에서 어휘와 문법으로 이행해 온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영어의 기초적 구조를 자유자재로 알아 들을 수 있게 되어야 하며, 상통 어휘를 자주 들어야 한다. 학습이 종료되면 의미이해 여부를 점검하며, 새 문법사항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

(3)듣기의 제3기

큰 언어상황을 학습의 단위로 사용하여 통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학습의 주안점도 이해력 함양에 두며, 교재의 단위가 문맥이나 상황이 된다. 능동적으로 청취하고 많은 정보를 취사 선택적으로 청취하는 기술도 요구된다. 그리고 이해에 대한 점검과 교정을 철저히 하여 청취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여러 듣기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소리의 식별, 청각인상의 지속, 이해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소리의 식별은 개개의 소리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자·모음 뿐만아니라 음조, 휴지, 초분절음, 강세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청각인상의 유지는 방금 귀로 들은 것을 머리에 기억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일련의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복잡한 의미론적, 통사론적 지식이 작용한다. 이처럼 많은 표현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기법을 통해서 배양될 수가 있다. 따라서 듣기는 대화의 환경에 노출되어 부단히 듣고, 표현함으로써 향상 되어질 수 있겠다.

2. 듣기학습의 방향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듣기의 단계인, 음 식별, 청각 인상의 지속, 발화의 이해의 측면에서 듣기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음 식별 단계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모국어 음과 영어음을 구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어의 음운체계안에서 음운적 대립의 기능을 갖는 모든 음소들을 구별하는 것이다. Rivers(1981)에 의하면 음 식별의 초기 단계에서 어떤 문자들의 결합이 항상 일정한 음을 나타낼때 받아쓰기는 학생들의 음 식별을 확실히 학습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유용한 듣기학습의 활동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²⁸⁾

음 식별에 활용할 수 있는 받아쓰기 형태는 최소 대립쌍의 연습과 통합이 잘 이루어진 음소 항목 받아쓰기이며, 철자 항목 받아쓰기도 발음과 철자를 연결시켜 주므로 훌륭한 음 식별 청취훈련이 될 수 있다.

다음 청각인상의 지속이란 귀로 들은 것을 머리속에 짧은 기간 동안 기억해 두는 것을 의미 하는데 이것이 가능해야 계속 전달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뜻을 파악하게 된다. 구어로 행해지는 모든 언어활동은 기억능력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각인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음성언어를 듣는 일에 익숙해야 한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구두 활동, 반복, 질문-응답 연습, 최소 대립쌍의 연습, 문형연습, 따라하기와 외우기 등 모든 활동은 청각인상의 기억능력을 신장시키는 듣기연습이 된다. 특히 적당한 길이의 문장이나 단락의 받아쓰기 활동은 학생들의 청각인상을 지속시키는 효과적인 청취훈련이 될 수 있다.

청각인상의 유지와 의미단위에 대한 기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분 받아쓰기(spot dictation)나, 통제식 받아쓰기(controlled dictation)를 활용하여 짧은 문장에서 점차 긴 문장으로서의 받아쓰기 형태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발화내용의 이해란 아무리 음 식별 능력이 개발되고 청각인상의 기억력이 증진된다 하더라도 발화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된 의미의 듣기 활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들은 단어나 문장 구조에서 생겨나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즉 발화 내용의 이해는 청각을 통해서 들려오는 분절음소 및 초분절 음소의 식별 능력과 어휘 및 문구조에 관한 통사적인 지식, 발화문이 사용되는 상황과 문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발화문의 내용을 잉여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여 들으면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는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듣기란 단순히 귀에 와 닿는 소리를 인식하는 수용적 과정이 아니라 화자가 의도하는 바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청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나가는 창의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듣기학습에 있어서는 최소

28) W.M.Rivers(1981), op.cit., p.134.

대립어의 음소 항목 받아쓰기를 통하여 소리를 식별하는 연습을 하고 점차 음운, 어, 구문의 의미 및 구조관계 등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는 연습은 학습자의 수준이나 교재내용의 재료에 따라 부분 받아쓰기, 철자 항목 받아쓰기, 단락 받아쓰기 등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3. 받아쓰기 학습

앞에서 듣기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받아쓰기를 제시했다. 이제 받아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받아쓰기의 의의와 효과 그리고 유형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1) 받아쓰기의 의의

받아쓰기는 청각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정확한 필기 형태를 획득하는 엄밀히 통제된 언어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받아쓰기는 보통 귀로 들은 말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으로, 눈으로 본 문장을 옮겨 쓰는 것과는 구별이 되며, 광의로는 영문 영답의 형식이나 구두 작문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받아쓰기는 듣기 연습을 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Morris(1975)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importance of dictation in a foreign-language course is usually underrated. If efficiently applied it is an aid to every phase of language training. It gives practice in ear training, orthography, punctuation and grammar." ²⁹⁾

이와 같이 받아쓰기는 연습과정을 통해서 음성 언어에 대한 집중된 주의력을 요구하고 있어 그에 대한 이해력은 물론 문법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게 되며, 학습자의 청취 능력과 정확한 철자 능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학습 활동이다. 그 이외에도 받아쓰기는 적절히 변형하면 청취 이해력을 비롯하여 필기, 발음, 작문, 문법 학습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받아쓰기는 음성신호를 문자로 옮기는 활동이지만 적절한 받아쓰기 활동은 학습초기에 철자와 발화관계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청각이 예민해지고 소리의 식별력이 강화되어 청

29) B.A. Morris (1975), *The Art of Teaching English as a Living Language*, Tokyo: Kenkusha, Ltd., p.129.

취력이 급속히 향상된다.

받아쓰기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철자학습에서 구뎡점과 대문자학습 뿐만아니라 특히 외국인에게 듣기 어려운 기능어, 축약, 동화, 억양, 음조에 대한 식별력이 강화되어 청취력에 많은 도움이 된다.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약음절의 기능어나 축약어는 읽고 쓸 수는 있어도 발화에서는 알아듣지 못하고 혼돈을 일으키므로 받아쓰기 학습은 이러한 학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취력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

2) 받아쓰기의 효과

일반적으로 받아쓰기의 가장 큰 효과는 받아쓰기가 끝난 후 즉시 수정을 하고 즉각적으로 feedback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오의 확인을 통해서 강화작용이 일어난다고 Robinett(1978)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One of the most effective aspect of dictation results from the immediate feedback provided if the dictation exercises is corrected as soon as the exercises is completed.”³⁰⁾

Sawyer(1972)는 받아쓰기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 교사에게 유리한 점

- (1) 학급의 규모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 (2)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지도할 수 있다.
- (3) 받아쓰기 교재가 선정되면 교사에게 별다른 준비가 요구되지 않는다.
- (4) 수정과 채점이 간편하고 용이하다.

2. 학생에게 유리한 점.

- (1) 학습자에게 note-taking의 훈련을 시킨다.
- (2) 학습자에게 쓰기 훈련을 시킨다.

30) B.W. Robinett(1978), "Acquiring Second Language Skills," in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Minneapolis: Minnesota University Press. p.215.

(3)들은 것 중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

(4)받아쓰기는 학습자 자신이 오류를 실감하여 점차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한다. ³¹⁾

한편 받아쓰기는 기억력 증진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 듣고 받아쓰기 훈련을 계속 실시하면 한 문장을 듣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memory span)이 증가하는데, 처음에는 한 문장을 듣고 기억하는 단어의 수가 두세 단어밖에 기억하지 못하던 학생도 오래지 않아서 기억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Harris(1970)에 의하면 기억 능력의 점수는 영어 사용 시험(English usage test)과 청취력 점수에서 서로 상호관련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grammatical accuracy 점수와 청취력 점수의 상호관계 : 0. 732
2. content-accuracy 점수와 청취 및 사용시험(listening and usage) 점수의 상호관계 : 0. 735
3. content-accuracy 점수와 청취력 점수와의 상호관계 : 0. 761
4. content-accuracy 및 grammatical accuracy 점수와 청취 및 사용시험 점수 의 상호관계 : 0. 793³²⁾

위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취력은 문법이나 내용 이해와 상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어학습은 특히 기억이 중요시 된다. 기억에는 정착, 지속, 상기가 있는데, 기억의 지속을 위하여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 연습하기를 중시한다.

청취력과 받아쓰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청취력과 받아쓰기의 상관도 ³³⁾

Year	Skill	Reliability
1976	Listening Comprehension vs Cloze test	0.279
1977	Listening Comprehension vs Dictation	0.579
	Listening Comprehension vs Cloze test	0.269

31) Sawyer and Silver(1972), op. cit., pp.228~229.

32) D.P.Harris(1970), "Report on an Experimental Group-Administered Memory Span Test," TESOL Quarterly, 4, p.210

33) 제3차 국제 학술 대회 회의록(한국 영어 교육학회), p.71, 이회재 · 임호순 · 김기홍, p.87에서 재인용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받아쓰기는 듣기와 상관 관계가 상당히 높으며, 받아쓰기가 듣기 능력과 규칙 빈칸 메워쓰기의 능력 개발에 효과적이다.

Ford(1975)는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받아쓰기의 효과는 모국어 습득의 습관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학습하고 있는 외국어의 새로운 형태를 정착시키는 데 귀중한 연습을 제공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받아쓰기는 청취, 이해, 쓰기, 읽기가 모두 내포된 과정이므로 언어 능력들을 통합시키는데 효과적인 활동이 되며,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화자의 정보를 모국어 청자가 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청취하는 습관이 정착된다고 밝히고 있다.³⁴⁾

Postovsky(1975)는 청취력 양성이 구두 표현력 양성의 선행요건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청취-쓰기 방법을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³⁵⁾

첫째, 외국어 학습에서 청취와 쓰기 연습을 먼저 시키는 것이 4기능의 개발에 훨씬 효과적이다. 둘째, 청취한 말을 문자로 쓰게 하는 연습은 말하기로의 전이를 용이하게 만든다. 셋째, 동일한 구어체 자료를 가지고 쓰기 연습을 시키는 것이 문법구조를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발음 연습에 앞선 바른 철자체계의 제시도 발음 연습을 먼저 시키고 문자를 뒤에 제시할 때 생겨나는 많은 오류를 해소시킨다.

받아쓰기의 효과를 청취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받아쓰기는 청취 학습을 도와 언어의 4기능 개발을 촉진한다.

둘째. 받아쓰기는 말하기 기능의 전이를 쉽게 한다.

셋째. 받아쓰기는 문법 구조를 익히는데 도움을 준다.

넷째. 받아쓰기는 발음 연습 후에 문자를 제시할 때 생기는 문제를 소거해 준다.

그밖에도 받아쓰기는 청각과 시각적인 훈련을 하도록 하여 언어 학습을 더욱 보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청취 학습에 받아쓰기를 폭넓게 적용하여 언어 사용 능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받아쓰기의 유형

받아쓰기 유형은 받아쓰는 재료의 종류나 길이에 따라서 음소항목 받아쓰기, 음소 전문 받아쓰기, 철자 항목 받아쓰기, 철자 전문 받아쓰기 또는 부분받아쓰기와 전문받아쓰기 등으로 나누어진다.

34) J.M.Ford(1975), "The Place of Dictation." : Handbook for Modern Language Teachers, ed. Alan W. Hornsey London: Methuen Educational Ltd. p.297

35) V.A.Postovsky(1975), The Priority of Aural Comprehension in the Language Acquisition Process-4th. ALLA World congress. p.92.

Paulston & Bruder(1976)는 받아쓰기 유형을 2가지 형태인 전문 받아쓰기(complete or full dictation)와 부분 받아쓰기(spot dictation)로 분류하고 있는데 전자는 학습자가 들은 내용을 전부 받아쓰는 형태이고 후자는 듣고 있는 요소들을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전부 받아 쓸 수가 없으므로 언어의 잉여성과 문맥에 의해서 유추가 가능한 선택적이며 보다 더 신속하게 받아쓰는 형태이다.³⁶⁾ 전문전문받아쓰기는 학생들이 이미 구두 연습을 했던 재료로 구성된다면 훌륭한 복습과 정리 단계가 되고 부분 받아쓰기는 보다 신속한 듣기훈련에 적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전문 받아쓰기는 고급 수준의 청취훈련에 유용하고 부분받아쓰기는 초급수준의 학생에게 유익하나 부분받아쓰기도 수준에 맞게 잘 구성 되기만 한다면 수준에 관계 없이 실시할 수 있다.

Rivers & Temperly(1978)에 의하면 부분 받아쓰기는 문장을 의미단위로 분할하는 통사적인 실마리를 탐지하는 연습을 제공해 준다고 한다.³⁷⁾ Oller(1972)가 제시한 괄호넣기 받아쓰기(cloze dictation)도 일종의 받아쓰기의 형태인데 그에 의하면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된 산문을 선정하여 단어들을 생략시킴으로써 구성이 된다고 했다. 보통 한 문장에서는 5번째나 6번째에 오는 단어들을 생략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힌다.³⁸⁾

Robinett(1978)에 의하면 부분 받아쓰기는 학생들이 일련의 연속적인 문장을 들으면서 공란을 둘러싸고 있는 문맥과 잉여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생략된 항목을 추론케 함으로써 청취상의 기대와 예측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연습을 제공해 주고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밝히고 있다.³⁹⁾

일반적으로 듣기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받아쓰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음 식별과 관련하여

- (1) You are (). This room is very ().
- (2) I want to () here. I want to () here.
- (3) I am (). This () tree is beautiful.

36)C.B.Paulston & M.N. Bruder(1976).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chnique and aprocedures Cambridge:Winthrop Publishers.Inc.p.135.

37)W.M.Rivers & M.S.Temperley(1978).A Practical Guide to the Teaching of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New York:Oxford University of press. p.79

38)Jr.T.W.Oller(1971).“Dictation As a Test of ESL Proficiency”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ed.Harrold B.Allen and Russel N.CampBell.New DelAi:TATA McGraw-Hill. p.34

39)B.W.Robinett(1978).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University of Minnesota. p.185.

2. 일반 문장에서

- (1) Helen is going to wait Tom () () () the building.
(2) Will you do me a ()?

3. Dialogue에서

(Today is Wednesday.)

A : We have an English test () morning. ()?

B : Yes, Let's go to the () after ().

A : That's a good (). Let's meet () at four o'clock.

B : All ().

4. 단락의 경우

A year has () months. The first month is (), and the
last month is (). September is the () month of the year.
April comes after ().

음 식별에서 부분받아쓰기는 문장을 들으면서 최소 대립쌍인 live와 leave, right와 light, fine과 pine을 구별하여 들은 단어를 적어 넣는 것이고, 일반 문장에서는 in front of와 같이 연음 현상이 있는 구는 마치 한 단어처럼 다루는 것이 좋고 favor와 같은 단어는 그 문장에서 주요한 내용어 이므로 보통 생략시켜 듣는 훈련을 함으로써 발화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청취하는 습관을 정착시켜 나간다. 그리고 청취하려는 단어에 주의력을 집중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나가는 것이다. Dialogue나 단락의 부분 받아쓰기는 녹음된 재료나 교사의 육성을 들으면서 빈 칸을 채워야 하므로 유인물을 배부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칠판이나 차트에 미리 쓴 다음 빈 칸에 들어가는 말을 답지에 쓰도록 할 수도 있다.

Sawyer & Silver(1972)는 받아쓰기 유형을 음소 받아쓰기와 철자 받아쓰기로 구분한 다음 다시 항목과 전문으로 나누어 4가지로 상세히 분류했다.

- 1) 음소 항목 받아쓰기(phonemic items dictation)

- 2)음소 전문 받아쓰기(phonemic text dictation)
- 3)철자 항목 받아쓰기(orthographic items dictation)
- 4)철자 전문 받아쓰기(orthographic text dictation)⁴⁰⁾

영어의 긴 문장의 음소 전문 받아쓰기는 초급과 중급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공하게 되므로 비실용적인 형태가 되는 반면, 철자 항목 받아쓰기는 철자체계와 음체계에 연관성이 학습된 후에 발음을 들으면서 철자를 습득하는 어휘력 학습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형태이다. Sawyer and Silver에 의하면 4가지 받아쓰기 유형 중에서 음소 항목 받아쓰기와 철자 전문 받아쓰기가 가장 권장할 만한 것이라고 하면서 음소 항목 받아쓰기는 음소의 이음(異音)분포와 모국어의 음과 목표언어의 음 단위들을 상호 관련시키는 것을 배우게 하는 형태이고 시각 기호에 의해 음소간의 대조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¹⁾

따라서 음소 항목 받아쓰기는 모국어의 음과 학습하는 영어의 음을 식별하는 능력과 영어의 음운체계 안에서 음운적 대립의 기능을 갖는 모든 음을 식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소 항목 받아쓰기의 재료는 간단한 단어나 구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음 식별을 위해 사용되는 이러한 받아쓰기는 음의 대조, 조음점의 유사점, 조음 방법의 차이에 따라 특징지어지는 변별적 자질에 따라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성되도록 유의하여야 하는데 음 구별에 적용할 수 있는 음소 항목 받아쓰기의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1)자음의 경우

- | | |
|------------------------|------------------------------|
| (1)/f/-/p/ fine-pine | (2)/b/-/v/ bane-vein |
| (3)/θ/-/s/ think-sink | (4)/ð/-/d/ though-dough |
| (5)/s/-/ʃ/ sign-shine | (6)/z/-/ʒ/ zoo-jew |
| (7)/l/-/r/ light-right | (8)/ʒ/-/ʃ/ allusion-aleution |

2)모음의 경우

- | | |
|--------------------------|--------------------------|
| (1)/i/-/i : / ship-sheep | (2)/ə/-/ɔ : / cot-cought |
| (3)/ou/-/ɔ : /low-law | (4)/e /- /æ / pet-pat |

40)J.O.Sawyer & S. K.Silver(1972), "Dictation In Language Learning."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d. harrold.B. Allen and Russel N.Comobell New DelAi:TATA McGraw-Hill.p.229

41)Ibid ,p.224

3)단일어의 경우

(1)live /liv/

leave /li : v/

(3)hard /ha:rd/

heard /h:rd/

(5)coat /kout/

caught /kɔ:t/

(2)bed /bed/

bad /bæd/

(4)work /wɜrk/

walk /wɔ:rk/

(6)there /ðeə/

dare /dɛər⁴²⁾

최소 대립쌍의 연습과 함께 이루어지는 음소 항목 받아쓰기는 자음 음소와 모음 음소를 받아쓰는 형태로 부터 시작하여 단일어나 짧은 구 항목을 전부 받아쓰는 형태로 실시된다면 학생들의 음의 식별은 물론 명확한 발화력의 신장을 도모 할 수 있게 된다. 단일어의 음운 현상을 다루고자 할 때는 음소 항목 받아쓰기가 효과적이지만, 중급이나 고급 수준의 학생들에게 연속적인 음으로 이루어지는 발화문을 잘 들으면서 정확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는 철자 전문 받아쓰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철자 전문 받아쓰기란 학습하고 있는 영어의 대화문이나 적당한 길이의 단락에서 선정된 대략 100-150개의 단어들에 관한 받아쓰기인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그 길이와 속도는 적당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철자 전문 받아쓰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연속적인 언어음을 이해하는 연습이 된다는 것이다. 철자 전문 받아쓰기는 일련의 고립된 문장이나 단락 또는 통합이 잘 이루어진 몇개의 문장의 배열로도 구성될 수 있다.

전문 받아쓰기의 재료는 학생들의 수준, 가장 필요한 문법, 문체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사전에 학습되지 않은 재료를 선정하게 되면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것과 들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단락 받아쓰기 재료는 이미 학습했던 재료에서 선정해서 그 제시 형태를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문법 수준과는 너무 다른 변형을 도입해서는 안되며 문법의 특징, 어휘, 철자, 발음등 수업의 다른 영역에서 배워진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는 단락을 선정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받아쓰기가 듣기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사용되려면 교사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저지르는 오류의 유형을 청취상의 오류와 철자상의 오류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양자의 차이를 분명

42)김태훈(1988), "받아쓰기를 통한 영어 듣기 학습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히 구별해 주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기가 범하는 오류의 종류를 깨닫게 하고 교정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재료를 3번씩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1) 1회 때는 정상적인 속도로 2회 때는 의미 단위로 문할해서 들려주되 구두로 반복 연습할 시간과 쓰면서 구두 연습할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3회 때는 다시 정상속도로 들려주어 수정. 보완토록 한다.
- 2) 받아쓰기의 훈련이 많이 되고 또 그 재료가 기습의 것으로 간단한 것이면 3회 모두 정상 속도로 들려주어 받아쓰도록 할 수도 있다.
- 3) The University of California의 ESLPE(English Second Language Placement Exam)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해지고 있다. 제1회는 정상적인 속도로 전체를 1회 들려준다. 제2회는 의미단위에서 끊어서 들어주고 이때에 학생들로 하여금 받아쓰도록 한다. 제3회는 전체를 정상속도로 다시 들려주되 가끔 휴지를 두어 정정토록 한다.
- 4) 받아쓰기는 보통수업의 복습 및 정리단계에서 실시하여 전시간에 학습된 중요한 구문을 과제로 부과하여 이를 암기시키고 그 중에서 5문항을 받아쓰도록 한다.
- 5) 평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아쓰기한 것은 즉석에서 정정해 주어야 오류의 교정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철자 전문 받아쓰기의 절차를 통하여 학생들은 청해상의 오류, 문법적인 오류, 철자상의 오류들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저지르는 오류는 교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철자 전문 받아쓰기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모국어 화자들이 작문해 나가는 과정과 아주 흡사한 방법으로 제2외국어를 의미있게 작문해 나가는 과정과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제2외국어를 의미있게 작문해 가는 학습훈련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결국 듣기학습의 영역별로 적절한 유형의 받아쓰기를 활용하여 듣기지도를 하게 되면 보통 수준의 학생도 학기말에 가서는 어려운 구문의 받아쓰기나 듣기 테스트에서 그 오류의 수가 상당히 감소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변화가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모든 능력들이 비례적으로 우수하게 신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도 받아쓰는 과정에서 음을 식별하는 능력, 음과 철자를 연결하면서 바르게 철자하는 능력, 문의 강세나 억양관계에 대한 초분절 음소를 식별하여 이해하는 능력, 발화문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청각인상을 지

속하는 능력, 언어의 잉여적인 요소들을 활용하면서 계속 전개될 발화문의 내용을 예측하는 능력 등이 점차적으로 신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능력들은 영어학습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다른 3기능의 영역에 대한 학습의 전이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Ⅳ.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방안

받아쓰기가 일반적으로 듣기능력 신장을 위한 연습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앞에서 모두 밝힌 바 있다. 또한 받아쓰기의 여러유형도 언급했는데, 부분받아쓰기(spot dictation)와 전체받아쓰기(full dictation)를 중심으로 이를 좀더 세분화하여 세 단계로 나누어 지도할 수 있다.

초급단계 : 부분 받아쓰기의 일부로서 소리를 듣고 한 단어 받아적기, 구·절·문장을 들으면서 밑줄 부분에 한 단어 적어넣기, 그리고 음운 식별하기.

중급단계 : 소리의 연결체로서 구·절과 같이 두 단어 이상의 것을 듣고 받아적기.

고급단계 : 문장 단위로 들은 바를 보통 쓰이는 철자로 올바르게 받아적기.

1. 초급단계 받아쓰기

초급단계 받아쓰기의 적용은 한단어 받아쓰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국어 화자 혹은 녹음 자료를 이용하거나, 교사에 의하여 실시되며, 의미에 관계없이 불러주는 한단어 받아적기, 그리고 한단어만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문장, 절, 구 단위로 읽어 주고 중요한 단어를 '()' 혹은 '___'로 비워두고, 정상속도로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단어를 적어 넣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1. 다음을 잘 듣고 받아 쓰시오.

father	lead	load	flour	eat
farther	read	road	flower	it

2. 다음 문장을 잘 듣고 ()을 채우시오.

① Most fruit trees () in spring. (flower)

② Man is a () animal. (two-footed)

③ The cloudscape () from our plane was simply wonderful. (seen).

3. 다음 대화를 잘 듣고 공통으로 들어갈 한 단어를 쓰시오.

A : What's the population of Korea, Chun-ho?

B : We have a () population.

A : How () is it?

B : 55 million altogether. (large)

4. 다음을 잘 듣고 ()을 채우시오.

① It was (). (wrong)

It was (). (long)

② Can't () go? (she)

Can't () go? (he)

5. 다음을 잘 듣고 같은 음으로 나는 것은 '0'로 다른 음으로 나는 것은 'x'로 표시하시오.

They are thinking now.

They are sinking now.

They are great leaders.

They are great leaders.

6. 다음 글을 잘 듣고 ()을 채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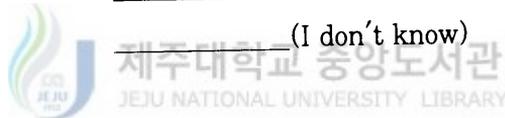
But it was () very clean last year. () day they went swimming. There was a (). It said, "no ()". The children went () to the lake and looked () the water. The water was very ().

2. 중급단계 받아쓰기

중급단계 받아쓰기는 한단어 이상의 낱말을 '()'나 '____'로 비워두고 모국어화자, 녹음기, 교사가 정상속도로 읽어주는 글을 듣고 두단어 이상의 낱말을 학습자가 받아 적을 수 있도록 제시한다. 이 단계의 받아쓰기는 연음되는 말을 정확히 청취했는지 어떤지를 알아보는 데 특히 효과가 있으며, 또한 중요한 숙어의 숙지 정도를 알아 보는데 효과가 있었다. 다음은 그 실례이다.

1. 다음 말을 잘 듣고 받아 적으시오.

- ① _____ (have to)
- ② _____ (horse-shoe)
- ③ _____ (of course)
- ④ _____ (sit down)
- ⑤ _____ (I don't know)



2. 다음 문장을 잘 듣고 ()을 채우시오.

- ① You will know it () (). (in time)
- ② I () () () come. (would like to)
- ③ Everybody is () () (). (in a hurry)
- ④ I cannot () () () his rudeness. (put up with)
- ⑤ He walked () () () Pusan. (as far as)
- ⑥ A : How do you like learning English?
B : () () (). But it takes too much time. (I enjoy it)

3.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을 채우시오.

A : May I help you?

B : Where's the Chamshil Gymnasium?

A : I'll draw a map for you, Look. We are here, Turn () () (). () .

B : Oh, I see. Thank you very much.

4. 다음을 잘 듣고 ()을 채우시오.

We also know that () the sea is a vast storehouse () () (). We do not () () () where all of these things are or how to get them () () the sea. () is much we need to ().

이상과 같이 초급·중급단계 받아쓰기는 부분 받아쓰기로, 한 단어 혹은 두단어 이상의 낱말을 정확히 듣고 식별하고, 받아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으며, 특히 문장상의 stress form과 weak form을 구별하고 받아 적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3. 고급단계 받아쓰기

고급단계 문장 단위 받아쓰기는 문장 전체의 의미와 각 낱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단어 상호간의 관계를 알아야 제대로 적어 나갈 수 있으므로 음운을 식별하는 정도의 1, 2단계 받아쓰기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종합적인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 전체 받아쓰기의 일부이다. 문장 받아쓰기는 교사, 모국어화자, 그리고 녹음기를 통하여 문장을 듣고 받아 적도록 하는 방법이다. 시행방법은 처음에는 짧은 문장에서 시작해서 점차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진행해 나간다.

* 다음을 잘 듣고 받아 적으시오.

- ① Please come in.
- ② Who are they?
- ③ Do you have a piano?
- ④ What do you like best?
- ⑤ He lives in a big house.
- ⑥ Every afternoon they give a show.
- ⑦ He is twenty-seven years old.
- ⑧ Do you have any dreams about the future?
- ⑨ Last summer vacation, I went to my uncle's in New York.

V. 듣기 능력 향상 수업과정 모형

1. 듣기능력 지도상의 일반적 원리

듣기학습의 목표는 정상적인 속도로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습득하는데 있으며, 듣기능력은 영어 학습자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이고, 또한 언어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앞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다. 그러면 이러한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그 일반적 원리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듣기능력 지도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 Morley(1971)는 다음과 같이 6가지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 (1) 청취이해 수업은 분명한 학습 목표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교육과정에 부 합되어야 하고, 교사와 학생은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 (2) 청취이해 수업은 조심스럽게 단계적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3) 청취학습을 위한 계획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생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 (4)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기억력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학습자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 (5) 청취이해 수업은 능동적인 암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6) 청취이해 수업은 가르쳐야지 평가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대답에 대한 평가는 피이드백(feed back)으로 사용되어야지, 합격·불합격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⁴³⁾

이러한 원칙을 교사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청취연습을 시켜야 하는데 청취연습에 있어서 그 절차적 특징은 여태까지 많은 학자들의 연구과제가 되어왔다. 말의 속도, 분절(segment)이나 휴지(pause)의 길이, 교실의 음향상태, 교실과 어학 실습실의 물리적 양상등은 청취학습에 결정적인 요인이므로 교사들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Valetle(1977)은 영어의 청취이해 능력을 개발·증진시키기 위한 교수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하고 있다.

43) H. J. Morley & M. S. Lawrence(1971), "The Use of Films i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Language Learning* 22, No. 1. pp. 101~103.

첫째, 음운체계에 대한 이해 : 독립적인 음가의 식별, 문장의 구조적 의미의 식별, 영어 특유의 억양 형태 및 강세의 식별 등이 학습되어야 하며, 음운체계내의 잉여성(redundancy)도 가르쳐야 한다.

둘째, 어휘의 뜻 이해 : 들은 말의 이해 정도는, 그 말의 어휘 지식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므로, 어휘의 대표적인 뜻과 특수한 맥락 속에서의 뜻을 확실히 구별하여 알 수 있도록 그 예문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테면 막연히 동의어라고 하여 전부 같은 뜻이라고 외워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동의어가 가지는 미묘한 의미의 차이, 뉘앙스 등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문장 구조의 이해 : 영어의 문장 구조나 문법에 관한 지식 없이는 정확하고 적절하며, 그리고 자신있게 영어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교수는 문장구조나 문법에 관하여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이때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청취력도 물론 포함되는 것이다.

네째, 메시지의 요점 파악 : 청해의 과정을 보면 들은 말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요지만을 기억하여 회상한다. 따라서 청해지도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불리한 조건에서의 청해 :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늘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또렷히 들려오는 것은 아니다. 주변이 시끄러운 곳에서의 대화, 지역적 사투리, 속도가 빠른 말 등은 같은 말이라도 한층 알아듣기가 힘들다.⁴⁴⁾

모국어 사용자들은 그런 조건하에서도 어려움이 없지만, 영어를 배우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조건하에서 알아듣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모국어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언어 자체와 사회적 상황, 문화적 맥락에 대한 배경지식과 잉여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들은 요소가 있더라도 그 잘못들은 부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실마리를 그 배경지식과 잉여성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해력 신장을 위한 교수에서는 영어 자체 뿐만이 아니라 영어 사용자들의 생활 방식, 사고방식, 문화양식 등에 관한 배경지식과 잉여성까지도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제시할 수업모형에서는 이러한 듣기 지도 원리를 기초로 하여 듣기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논의해 온 받아쓰기를 적용시켜 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교수-학습 지도 절차는 도입-복습-전개·발전-정리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영어과 수업모형 역시 이와 비슷하여 KEDI(1980) 영어과 수업 과정 모형을 보면, 학습목표의 설정-학습자의 준비-제시 및 설명-연습 및 조작-적용 및 응용-정리·평가·과제제시로 세분화 할 수 있다.⁴⁵⁾

44) R.M. Valetle(1977), *Modern Language Testing*, 2nd ed, New York : Harcopyrt
Brace Jovanovich, pp. 99~104.

45) 홍보업 외 3인(1980), 「외국어 수업과정 모형 대안 연구보고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p. 9.

여기에서 받아쓰기를 어느단계에 넣어야 할 것인가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업의 정리 단계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 수업시간에 배운것을 바탕으로 하여 수업수준에 따라 낮은 단계에서는 초급, 중급단계 받아쓰기를 적용해야 할 것이고, 좀더 높은 단계에서는 고급단계 받아쓰기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받아쓰기를 통한 듣기중심 수업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해온,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받아쓰기가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수업안을 제시해보기로 하겠다.

Lesson plan

A. Master plan

1. Text : *Middle School English Book I*, Young-hee Chang et al.
2. Unit : Part 1, Lesson 4 : I like Pop Songs.
3. General aims of the lesson.

1) Students can improve their listening comprehension skill in language learning with the following functions :

- (1) Asking and answering what you like/he likes/she likes.
- (2) Asking and answering where something is.
- (3) Asking and answering what you/he/she have(has).

2) Students can communicate using the followings :

(1) structures

① Interrogative sentences : like, have : Do you like~?

Do you have~?

②Answer : Yes, I do.

Yes, he(she) does.

(2)Prepositions : in, on, under, behind.

(3)New words : like, have, music, pop, song, piano, do,
room, love, many, tape, too.

(4)Pronunciation

①Sounds and spelling : [p], [b]

②Intonation : Mike, do you like pop songs?

Yes, I do. No, I don't.

4. Time allotment : 9 periods(45 minutes each)

* The 1st period : Review of the last lesson, Listen please.

* The 2nd period : Get ready, Listening comprehension.

* The 3rd period : Reading

* The 4th period : Reading

* The 5th period : Dialogue.

* The 6th period : Let's practice.

* The 7th period : Speaking activities

* The 8th period : Study points

* The 9th period : Exercises.

5. Aids : Tape Recorders, Pictures, Word cards, VTR.

B. Sub Plan

1. Unit : Book I , Part 1, Lesson 4, pp. 64.

2. Time : 45 Minutes.

3. Period : The fourth period of 9 periods

4. Teaching Materials

Lesson 4. I Like Pop Songs. :

①

I have a piano.
The piano is in my room.
I love music.
I like pop songs.
I have many tapes.
Do you like pop songs , too?

②

I have many English books.
The books are on my desk.
I like storybooks.
I have many songbooks, too.
But I do not have many tapes.

③

Jane : Mike, do you like music?
Mike : Yes, I do.
Jane : Do you have many tapes?
Mike : No, I don't.
Jane : Do you like Korean songs?
Mike : Sure. I know many Korean songs.
Jane : That's nice. Are you a good singer?
Mike : No, I'm not.



5. Specific aims of this period.

1) Students can understand and use the following expressions.

① Do you like ~?

② Do you have a ~?

2) Students can listen and understand the differences of the following pronunciation.

3) Students can dictate the following words.

piano pop sports tape

book bag box but

6. Teaching aids : tape Recorder, Video player, pictures, words cards.



7. Procedures :

1) Introduction(5 min.)

a. Greeting

T : Good morning, everyone?

S : Good morning, Mrs. Han? How are you?

T : Fine, thank you. And you?

S : Fine, thank you. b. Roll call

T : Is anyone absent today?

S : No one. (or ____ is absent.)

b. Roll call

T : Is anyone absent today?

S : No one. (or ____ is absent.)

c. Warming-up

T : Before We begin today's class, let's practice some TPRs.

Now, everyone stand up. Raise your right hand, and raise your left hand. Stretch your hands. Put your hands down. Shake hands with your partner. Sit down on your chair. Pick up a pencil.

S : (Responding to the instructions)

T : You did them very well! Now take it easy.

d. Review

T : Let's review our last time. I'll show you some pictures. Look carefully and talk about them. (show some pictures)

T : This is your room. Do you love music?

S : (Yes, I do.)

T : Do you have a piano?

S : (Yes, I do.)

T : Do you like Pop song, too?

S : (Yes, I do.)

T : What's this? (show a cassette tape)

S : It's a tape.

T : What are these? (show some story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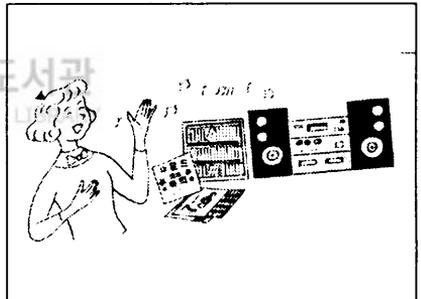
S : They are storybooks.

T : Do you like storybooks?

S : (Yes I do).

T : Do you have many songbooks, too?

S : (Yes, I do).



2) Presentation and explanation(13 min)

a. Present today's material : new words, useful expressions and pronunciation.

New words

music	tape
Korean	sure
nice	good
singer	know

useful expressions

Do you have a ~ ?
Do you like ~ ?
Yes, I/he/she do/does.

Pronunciation

[p] piano pop sports tape
[b] book bag box but

b. Drill the new words and pronunciation.

T : First, let's study some new words. Listen to the tape recorder (repeat three times.)

S : (Listen to the tape recorder)

T : Now, look at these picture cards and repeat after me.

(Show picture cards and the meaning of the new words.)

S : (repeat)

T : This time, I'll ask some questions. Please answer me. (show some pictures)

T : She is listening to ().

S : (Music)

T : She is a ().

S : (Korean)

T : He is a ().

S : (Singer)

T : Good.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p] sound and [b] sound showing word cards and chart)

[p] piano pop sports tape

[b] book bag box but

3) Development (15 min.)

a. Listening

T : Here are Jane and Mike. They are talking about something. Let's listen to the tape recorder. Listen carefully.

S : (Listen to the tape recorder.)

b. Activity

T : Now, listen to the tape recorder one more, and I'll ask you some questions. Please answer me.

S : (Students listen and answer the questions)

T : Does Mike like music?

S : (Yes, he does.)

T : Does Mike have many tapes?

S : (No, he doesn't)

T : Does Mike like Korean songs?

S : (Yes, he does)

T : Does he know many Korean songs?

S : (Yes, he does.)

T : Is Mike a good singer?

S : (No, he doesn't.)

T : O. K. Very good.

c. Listen and repeat.

T : This time, listen and repeat after the tape recorder.

S : (Listen and repeat after the tape recorder)

4) Dictation(7 min.)

T : Now, You will dictate some words. Before you dictate, you have to remember the difference of the pronunciation [p], [b]

This time, listen to the tape recorder carefully. It will repeat three times. After you listen to the tape recorder, you will dictate the words.

[p], [b] piano, bag, pop, book, sports, box, tape, but.

S : (dictate the phonemes and words on the notes).

T : This time, I want to know how well you listen and understand the story.

So, while you listen to the tape recorder, fill the blanks with appropriate words.(give papers to the students)

S : (dictate)

Jane : Mike, do you () music?

Mike : Yes, I do.

Jane : Do you have many () tapes?

Mike : No, I don't.

Jane : do you like () songs?

Mike : Sure, I () many Korean songs.

Jane : That's (). Are you a good singer?

Mike : No, I'm not.

5) Summary(5 min.)

a. Presentation of the next class.

T : O. K. You did very well. Please give me the papers. Now, do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oday's lesson?

S : (Nobody.)

T : Next class we are going to study "Dialogue".

b. Assignment.

T : Today's homework is listening to the tape recorder about today's lesson many times.

c. Saying good-bye.

T : That's all for today. And then, we have a little time left. So, how about singing one English song?

S : That's sound good.

T : O. K. Let's sing "Good-bye song".



Ⅵ. 결 론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연구와 이번 연구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듣기능력이 습득되어야 한다는 것과, 듣기능력 신장을 위한 방안으로서 받아쓰기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에 적절한 교수 모형을 제시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외국어 학습 이론에서 볼때,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4기능중 듣기능력이며, 특히 영어를 배우게 되는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생에 있어 듣기능력의 중요성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업 현장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실시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을 개선하고자 듣기와 말하기 학습 활동중 말하기를 가급적 지연시키고 말하기 대신 쓰기 활동으로 대처하여 그 방법의 하나로 받아쓰기를 제안하였다.

듣기능력은 음성언어를 듣고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이며, 듣기학습은 이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들은 단어를 의미단위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받아쓰기이다. 받아쓰기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음성언어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주므로 음식별과 듣기연습에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이 될 뿐만 아니라 음과 철자간의 테스트, 문구조 테스트, 의미있는 연속적인 언어음을 인지하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받아쓰기의 유형은 받아쓰는 재료의 종류나 길이에 따라서 음소항목 받아쓰기, 음소전문 받아쓰기, 철자항목 받아쓰기, 철자전문 받아쓰기 또는 부분 받아쓰기와 전문받아쓰기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받아쓰기 지도를 3단계로 나누어 제시했다.

초급단계는 부분 받아쓰기의 일부로서 소리를 듣고 한 단어 받아적기, 구·절·문장을 들으면서 밑줄 부분에 한 단어 적어넣기, 그리고 음운 식별하기이고, 중급단계는 소리의 연결체로서 구·절과 같이 두 단어 이상의 것을 듣고 받아적기, 그리고 고급단계는 문장단위로 들은 바를 보통 쓰이는 철자로 올바르게 받아적기이다. 이것을 수업과정에 포함시켜 5단계의 수업 모형을 제시했는데, 이중 받아쓰기는 여러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볼때, 정리단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업의 마지막 단계에 적용시켰으며, 받아쓰기 단계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초급단계에서 고급단계로 높일 수 있다.

최소 대립쌍의 연습과 함께 이루어지는 음소 항목 받아쓰기는 자음 음소와 모음 음소를 받아쓰는 형태로 부터 시작하여 단일어나 짧은 구 항목을 받아쓰는 형태로 실시된다면 학생들의 음의 식별은 물론 명확한 발화력 신장을 도모 할 수 있게 된다. 단일어의 음운 현상을 다루고자 할 때는 음소 항목 받아쓰기가 효과적이지만, 중급이나 고급 수준의 학생들에게 연속적인 음으로 이루어지는 발화문을 잘 들으면서 정확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는 철자 전문 받아쓰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받아쓰기 지도시 이 점을 염두에 두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끝으로, 최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학교교육에서 언어의 4기능 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듣기훈련의 방법으로 받아쓰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재내에 받아쓰기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하며, 듣기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교수기술이 더욱 많이 개발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기홍, 임호순, 이희재(1984), "중학교에 있어서 영어 청취력 향상을 위한 교 수방안." 「영어영문학 연구」, No. 25.
- 김준현(1983), "영어청취해독소고", 「경기 공업 대학 논문집 제19집」.
- 김진우(1983), 「영어 교육의 원리와 방법」,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 김태훈(1988), "받아쓰기를 통한 영어 듣기 학습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형기(1980), "Language Acqusion through the 'ear gate'", 「영어교육 제 19호」.
- 이계순(1986), 영어교육. 서울 : 개문사.
- 장영희외 외 3인(1995),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 동아출판사.
- 주무현(1993), "청해력의 학습효과 측정과 받아쓰기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채준기(1978), "영어의 Aural Comprehension Test의 작성." 「외국어 교육 논 문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하봉룡(1988), "듣기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학습 지도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보엽 외 3인(1980), 「외국어 수업과정 모형 대안 연구 보고서」, 서울 : 한국 교육개발원, 1980.
- 홍성면(1984), "Listening skills 와 Bilingual Education", 「영어교육」제 27호. 서울 : 한국영어교육학회.
- Asher, J. J. (1969), "The Total Physical Response approach to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Modern Language Journal* 53, 1.
- Belasco, S. (1965), "Nucleation and Audio-Lingual Approach," *The Modern Language Journal* 119.
- Brooks, N. (1960),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 Harcourt Brace and Co.

- Carroll, J. B. (1953), *The study of Language*.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stain, K. D. (1976), *Developing Second Language Skills : Theory to Practice*, 2nd ed. Chicago : Raud McNallege Publishing Company.
- Duker, S. (1966), *Listening : Readings*. New York : Scarecrow press.
- Gray, J. O. (1978), "Why Speak if You Don't Need to? The Case for A Listening Approach to Beginning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 Issues and Implication*. Ritchie, William Co. , ed. New York Academic Press.
- Hampleman, R. (1958), "Comparison of Listening and Reading Comparison Ability of 4th and 6th Grade Pupils", *Elementary English*, January.
- Harris, D. P. (1970), "Report on an Experimental Group-Administered Memory Span Test", *TESOL Quarterly*, 4.
- Johnson, K. D. (1951), "The Effective of Classroom Training Upon Listening Comprehension", *Journal of Communication*, May.
- Keltner, J. W. (1970), *Interpersonal Speech-Communication*, Belmont, California : Wadsworth Publish Co.
- Krashen, S. and Terrell, T(1983), *The Nature Approach :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Oxford : Pergamon, Alemany.
- Morley, H. J. & Lawrence, M. S. (1971), "The Use of Films i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as a Second Language. " *Language Learning* 22, No. 1.
- Morris, B. A. (1975), *The Art of Teaching English as a Living Language*, Tokyo : Kenkusha, Ltd.
- Newmark, G. and Diller, E. (1977), "Emphasizing the Audio-Lingual Approach, "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d. by Harold B. Allen and Russell N. Campbell. New York : McGraw-Hill, Inc.
- Nichols, R. G. & Lewis, T. (1954), *Listening and Speaking*. William Brown Company.
- Nord, J. R. (1975), "The Importance of Listening", *The English Teacher's Magazine*, XXIV.

- _____ (1980), "Developing Listening Fluency Before Speaking :
An Alternative Paradigm", System 8. 1. Burt, Duley and
Finochiaro eds. Regents Publishing Co. New York.
- Oller, J. W. Jr. (1971), "Dictation as a Test of ESL Proficiency,"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d. by Harold B. Allen and Russell N.
Campbell. New York : McGraw-Hill, Inc.
- Paulston, C. B. & Bruder, M. N. (1976),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chnique and Procedures, Winthrop Publishers Inc.
- Postovsky, A. (1974), "The Effects of Delay in Oral Practice at the Beginning of
Second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58.
- _____ (1975), "The Priority of Oral Comprehension in the Language
Acquisition Process." proceedings of the 4th ALLA Congress.
Stuttgart.
- Rankin, P. T. (1926), The Measurement of the ability to understand Spoken
Language.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University Press.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 Rivers, W. M. and Temperley, M. S. (1978), A practical guide to the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Robinett, B. W. (1978),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University of Minnesota.
- Sawyer, J. O. & Silver, S. K. (1972) "Dictation in Language Learning,"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d. by Harold B. Allen and Russel
N. Campbell.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 Snow, B. G. & Perkins, K. (1979), "The Teaching of Listening Comprehension
and Communication Activities", TESOL Quarterly 13.
- Toussaint, I. (1960), "A Classified Summary of Listening", Journal of
Communication, September.
- Valetle, R. M. (1977), Modern Language Testing, 2nd ed.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Abstract]

A Study of a Teaching Model for improving English Listening Skills

Han, In-Soon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oon-Taek

Recently, there have been studies on a variety of new methods of teaching English such as, 'Total Physical Response Approach', 'Natural Approach', and 'Community Language Learning', which focus on the enhancement of listening competence in an attempt to research. The effective language teaching needed for listening comprehension teaching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nglish listening skills by suggesting some possible functions of dictation as an effective and useful classroom teaching device in learning English.

To this end I studied the theoretical aspects of dictation techniques : (1)the theoretical basis of dictation, and (2)the various types of dictation and these functions in language learning.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August, 1996.

Dictation can be divided into four levels : The first level is a part of spot dictation. For example, one word dictation, phonemic item dictation, filling the missing word, and the second level is the dictation of more than two words, and the third dictation is sentence dictation.

The first and second levels of dictation are intended to discriminate the sound and the third level is an advanced level which can measure synthetic language ability. So, the first and second level dictation is suitable to the elementary level student and the third level dictation is appropriate to the advanced level student.

I suggest five phases teaching model to use these listening comprehension skills : introduction, presentation and explanation, development, dictation and summary. This kind of dictation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level of listening comprehension of the students.

